



2027
고2 문학
천재

2027 고2 문학 천재 | 4(1)(1) 공무도하가 기출 서술형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예상 출제 유형

이 단원에서는 집단 가요에서 개인적 서정시로 넘어가는 「공무도하가」의 문학사적 의의와 배경 설화 속 인물들의 역할을 묻는 문제가 주로 출제됩니다. 특히 시어 '물'이 시상 전개에 따라 사랑, 이별, 죽음으로 의미가 변화하는 과정을 서술하거나, 「구지가」, 「황조가」 등 다른 고대 시가와 갈래적 특성을 비교하는 유형이 중요합니다. 또한 김춘수의 「강우」와 연계하여 사별의 슬픔을 형상화하는 방식이나 '물'과 '비' 같은 객관적 상관물의 기능을 비교 분석하는 서술형 문제도 자주 출제되니 꼼꼼히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1. 다음 중 고대부터 고려 시대까지의 문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공무도하가」는 집단적 정서를 노래한 원시 종합 예술의 대표적인 작품이다.
- ② 고대 가요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다가 후대에 한문으로 기록되어 전해진다.
- ③ 향가는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 우리말의 특징을 살려 한글로 기록된 시가이다.
- ④ 「단군 신화」는 우리나라 문학 작품 중에서 가장 먼저 문헌에 기록된 노래이다.
- ⑤ 고려 속요는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적는 향찰을 공식 표기 수단으로 사용했다.

【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임이여, 물을 건너지 마오
임은 그에 물을 건너시네
물에 휩쓸려 돌아가시니
가신 임을 어이 할꼬

- 「공무도하가」

2. 윗글의 시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행의 '물'은 임을 향한 화자의 총만한 사랑의 상징적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다.
- ② 2행에서 임이 '물'을 건너는 행위는 화자와 임의 이별을 상징한다.
- ③ 3행에서 임이 빠진 '물'은 죽음을 의미하며 비극적 상황을 고조한다.
- ④ 4행의 '가신 임'은 화자가 원망과 분노를 터뜨리는 직접적인 대상이다.
- ⑤ '물'은 각 행의 전개에 따라 사랑, 이별, 죽음이라는 이미지로 변화한다.

3. 윗글의 배경 설화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광리자고의 아내 여옥은 강가에서 백수광부의 죽음을 직접 목격하고 노래를 지었다.
- ② 백수광부는 술병을 들고 강물에 뛰어들었으며 그의 부인은 이를 말리지 않고 지켜보았다.
- ③ 여옥이 공후를 타며 부른 노래를 듣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애절했다.
- ④ 이 노래는 여옥이 이웃 여자인 여용에게 전해주었으나 오늘날 가사는 전해지지 않는다.
- ⑤ 광리자고는 집으로 돌아와 백수광부 부인의 노래를 아내 여옥에게 직접 연주해 주었다.

4. 다음 <보기>의 작품들을 윗글과 연계하여 학습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가)
 생사(生死)길은
 예 있으며 머뭇거리고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르고 어찌 갑니까.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에 저에 떨어질 앞처럼,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 모르온저
 아아, 미타찰(彌陀刹)에서 만날 나
 도(道) 닦아 기다리겠노라.
 - 「제망매가」

(나)
 펄펄 나는 꾀꼬리는
 암수가 서로 정다운데
 외로운 이내 몸은
 뉘와 함께 돌아가리
 - 「황조가」

- ① (가)와 윗글은 모두 가까운 이의 죽음을 소재로 한 서정시라는 공통점이 있다.
- ② (나)와 윗글은 모두 부부 혹은 연인 간의 이별이나 상실의 슬픔을 다루고 있다.
- ③ 윗글과 (나)는 고대 가요에 해당하며, (가)는 신라 시대의 향가에 해당한다.
- ④ 윗글의 '물'과 (나)의 '꾀꼬리'는 화자의 슬픔을 위로해 주는 매개체로 사용되었다.
- ⑤ (가)는 3단 구성의 10구체 향가이며, 윗글은 4행으로 구성된 한역 시가이다.

5. <보기>는 윗글의 배경 설화이다. <보기>에 나타난 인물들에 대한 해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공후인(箜篌引)>은 조선(朝鮮)의 진졸(津卒) 팽리자고의 아내 여옥이 지은 것이다. 팽리자고가 새벽에 일어나 배를 끌어내 노를 젓고 있었는데 그때 머리가 허연 한 미친 사내[白首狂夫]가 머리를 풀어 헤친 채 술병을 들고 다짜고짜 강물에 뛰어들어 건너려 하자 그의 부인이 쫓아가서 말렸지만 미치지 못해서 결국 강물에 빠져 죽고 말았다. 그래서 그의 아내가 공후를 들고 연주해 <공무도하>라는 곡을 지었는데, 그 소리가 몹시 처량하고 구슬펄다. 그녀는 곡을 마치고 스스로 강에 몸을 던져 죽었다. 팽리자고가 집으로 돌아와서 그 노랫소리를 아내 여옥에게 말해 주었더니, 여옥이 슬퍼하며 이내 공후를 끌어당겨 그 노랫소리를 따라 연주했는데, 듣는 사람 중에 눈물을 떨구고 울음을 삼키지 않는 자가 없었다. 여옥은 그 곡을 이웃 여자 여용에게 전해 주고 이름하여 <공후인>이라 했다.

- ① 백수광부를 술병을 들고 있는 '술의 신'으로 보는 견해가 존재한다.
- ② 백수광부의 아내를 공후를 연주하는 '음악의 신'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 ③ 백수광부를 고단한 삶을 견디다 희망을 잃은 하층민으로 보기도 한다.
- ④ 팽리자고는 백수광부의 죽음을 목격하고 그 노랫소리를 아내 여옥에게 전한 인물이다.
- ⑤ 여용은 공후를 직접 연주하여 <공무도하>라는 곡을 처음으로 지은 인물이다.

6. 윗글에 나타난 ‘물’의 이미지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1행의 ‘물’은 임의 죽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화자의 체념을 상징한다.
- ② 2행의 ‘물’은 임이 화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건너감으로써 생기는 이별을 의미한다.
- ③ 3행의 ‘물’은 임과 화자가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재회의 희망을 내포한다.
- ④ 4행의 ‘물’은 화자가 임을 따라 몸을 던짐으로써 슬픔을 극복하는 공간이다.
- ⑤ 각 행의 ‘물’은 일관되게 임에 대한 화자의 변하지 않는 충만한 사랑만을 의미한다.

7.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구비 전승되다가 후대에 한문으로 기록되어 전해지는 한역 시가로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서정시에 해당한다.
- ② 노래의 생성 배경과 전승 과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배경 설화가 함께 전해진다.
- ③ 집단 가요에서 개인적 서정시로 넘어가는 단계의 작품으로 문학사적 가치가 크다.
- ④ 임에 대한 원망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며 자신의 정조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강조한다.
- ⑤ 중국의 문헌에 채록되어 전해지는 고조선 시대의 노래로 추정되는 고대 가요이다.

8. 고대부터 고려 시대까지의 한국 문학의 변화 양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원시 종합 예술 시기의 시가는 개인의 내밀한 정서를 주로 표현하였다.
- ② 향가는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기록하는 향찰로 표기된 정형 시가이다.
- ③ 고려 속요는 창작과 동시에 훈민정음으로 기록되어 오늘날까지 전해진다.
- ④ 한문학은 고려 시대에 이르러서야 중국으로부터 전래되어 창작되기 시작했다.
- ⑤ 구비 문학은 한자가 전래된 이후에도 기록되지 못하고 말로만 전승되었다.

【9~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임이여, 물을 건너지 마오
 임은 그에 물을 건너시네
 물에 휩쓸려 돌아가시니
 가신 임을 어이할꼬

- 「공무도하가」

(나)

조금 전까지 거기 있었는데
 어디로 갔나,
 밥상은 차려 놓고 어디로 갔나,
 넙치지미 맵싸한 냄새가
 코를 맵싸하게 하는데
 어디로 갔나,
 이 사람이 갑자기 왜 말이 없나,
 ㉠내 목소리는 메아리가 되어
 되돌아온다.
 내 목소리만 내 귀에 들린다.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잠시 누웠나,
 옆구리 담피가 다시 도졌나, 아니 아니
 ㉡이번에는 그게 아닌가 보다.
 ㉢한 뺨 두 뺨 어둠을 적시며 비가 온다.
 ㉣혹시나 하고 나는 뺨을 기웃거린다.
 ㉤나는 풀이 죽는다.
 빛발은 한 치 앞을 못 보게 한다.
 웬지 느닷없이 그렇게 퍼붓는다.
 지금은 어쩔 수가 없다고,

- 김춘수, 「강우」

9. (가)와 (나)를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두 작품의 화자는 모두 소중한 반려자를 잃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 ② (가)의 화자는 죽음을 막으려 애썼고, (나)의 화자는 죽음을 부정하다 수용한다.
- ③ (가)의 ‘물’과 (나)의 ‘비’는 모두 화자의 비통함을 심화시키는 소재이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시공간을 초월한 보편적 정서보다 개인의 특수한 경험만을 다룬다.
- ⑤ 두 작품 모두 마지막 부분에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체념적 태도가 드러난다.

10. (나)의 표현상 특징과 화자의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어디로 갔나'라는 물음을 반복하여 아내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강조한다.
- ② '넙치지지미'라는 구체적인 음식을 활용하여 아내와의 추억을 형상화한다.
- ③ '메아리'라는 청각적 심상을 통해 아내의 부재로 인한 단절감과 공허함을 드러낸다.
- ④ '비'라는 객관적 상관물을 활용하여 화자의 비통하고 슬픈 정서를 심화한다.
- ⑤ 화자는 끝내 아내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고 재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며 마무리한다.

정답 및 해설

1. [정답] ②

고대 가요는 구비 전승되다가 후대에 한문으로 기록되어 전해지는 특징을 지닌다.

① 「공무도하가」는 집단 가요에서 개인적 서정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작품으로, 개인의 서정을 노래한 서정시이다. 집단적 정서를 노래한 원시 종합 예술과는 성격이 다르다.

③ 향가는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적는 향찰로 기록된 정형 시가이다.

④ 한국 문학 작품 중에서 가장 먼저 문헌에 기록된 작품은 「공무도하가」이다.

⑤ 향찰로 기록된 문학 갈래는 향가이며, 고려 속요는 훈민정음 창제 후에 한글로 기록되었다.

2. [정답] ④

화자는 가신 입에 대해 슬픔과 탄식, 체념적 태도를 보이며 심정을 집약하고 있다.

① 1행에서 물을 건너지 말라고 말리는 부분의 물은 화자의 충만한 사랑을 드러낸다.

② 2행에서 임이 물을 건너는 행위는 임과의 이별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③ 3행에서 임이 물에 휩쓸려 돌아가시는 것은 임의 죽음을 상징한다.

⑤ 시적 전개에 따라 물의 상징적 이미지는 사랑, 이별, 죽음으로 점차 변화한다.

3. [정답] ③

여옥의 연주와 노랫소리가 몹시 슬퍼서 듣는 사람 중에 눈물을 흘리지 않는 자가 없었다.

① 백수광부의 죽음을 직접 목격하고 아내에게 말해준 사람은 광리자고이다.

② 백수광부의 부인은 강물에 뛰어드는 남편을 쫓아가서 말렸지만 미치지 못했다.

④ 여옥이 여용에게 곡을 전해주었으며 제목을 ‘공후인’이라 하여 오늘날까지 전해진다.

⑤ 광리자고는 아내 여옥에게 백수광부 부인의 노랫소리를 말로 전해 주었을 뿐이다.

4. [정답] ④

(나)의 꾀꼬리는 화자의 외로운 처지와 대비되어 슬픔을 강조하는 역할을 할 뿐이며, 화자의 슬픔을 위로해 주지 않는다.

① (가)는 누이의, 윗글은 남편의 죽음을 통한 이별의 슬픔을 노래한 서정시이다.

② (나)는 부인을 잃은 슬픔을, 윗글은 남편을 여인 슬픔을 주제로 한다.

③ 윗글과 (나)는 고대 가요이며 (가)는 향가이다.

⑤ (가)는 10구체 향가로 3단 구성을 취하며 윗글은 4행의 한역 시가이다.

5. [정답] ⑤

<공무도하>라는 곡을 처음 지은 사람은 백수광부의 아내이며 여용은 이를 전해 받은 인물이다.

① 백수광부가 술병을 들고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그를 술의 신으로 보기도 한다.

② 공후를 들고 있는 백수광부의 아내를 음악의 신으로 보는 해석이 있다.

③ 백수광부와 그의 아내를 희망과 의지를 잃은 하층민을 대표하는 존재로 보기도 한다.

④ 광리자고는 새벽에 배를 젓다 목격한 일을 아내 여옥에게 말해준 인물이다.

6. [정답] ②

2행에서 임이 그에게 물을 건너는 행위는 화자와 임 사이의 이별을 상징한다.

① 1행에서 물을 건너지 마오라고 말리는 부분의 물은 임을 향한 화자의 사랑을 의미한다.

③ 3행에서 임이 물에 빠져 돌아가시는 상황의 물은 임의 죽음을 상징한다.

④ 4행은 물에 대해 언급되지 않으며, 임을 잃은 화자의 슬픔과 탄식, 체념적 태도가 집약되어 있다.

⑤ 물은 시상의 전개에 따라 사랑, 이별, 죽음으로 그 이미지가 변화하며 주제를 형상화한다.

7. [정답] ④

윗글은 임을 잃은 비통한 슬픔과 체념을 노래한 것이지 원망이나 정조 수호를 다룬 시가 아니다.

① ‘공무도하가’는 한문으로 번역되어 문헌에 남겨진 가장 이른 시기의 서정 노래이다.

- ② 배경 설화에는 백수광부와 그의 아내 그리고 여 옥에 얽힌 노래의 유래가 담겨 있다.
- ③ 집단적인 제의나 활동에서 벗어나 개인의 감정을 노래했다는 점에서 과도기적 특징을 보이며 문학사적 가치가 크다.
- ⑤ 이 작품은 기원전 2세기경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노래로 중국 문헌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

- ③ 내 목소리가 메아리가 되어 돌아온다는 표현은 아내와의 단절감과 공허함을 상징한다.
- ④ 퍼붓는 빗발은 화자의 슬픔과 비통함을 심화시키는 소재이자 객관적 상관물이다.

8. 정답 ②

향가는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적는 향찰로 기록된 우리나라 최초의 정형 시가이다.

- ① 초기 시가는 집단적 행사에서 불리며 집단이 공유하는 정서를 담은 원시 종합 예술의 일부였다.
- ③ 고려 속요는 우리말로 전승되다가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 비로소 한글로 기록되었다.
- ④ 한문학은 한자가 전래된 삼국 시대부터 한시와 같은 형태로 창작되기 시작하였다.
- ⑤ 우리말로 전승되던 구비 문학은 한자가 전해진 삼국 시대부터 한자로 기록되었다.

9. 정답 ④

(가)와 (나)는 모두 시공간을 초월하여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정서를 다룬다.

- ① 두 화자는 각각 남편과 아내라는 소중한 가족을 잃은 슬픔을 노래하고 있다.
- ② (가)는 죽음을 막으려 애썼으나 막지 못한 절박함, (나)는 사별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인다.
- ③ (가)의 '물'과 (나)의 '비'는 화자의 슬픔과 비통함을 심화시킨다.
- ⑤ (가)의 '가신 입을 어이할꼬'와 (나)의 '지금은 어쩔 수가 없다고'에서는 모두 체념의 태도가 직접적으로 나타난다.

10. 정답 ⑤

화자는 마지막에 '지금은 어쩔 수가 없다고'라며 아내의 부재를 인식하고 체념하는 태도를 보인다.

- ① '어디로 갔나'라는 표현의 반복을 통해 아내에 대한 그리움을 효과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 ② 넙치지미의 맵싸한 냄새를 통해 아내를 기억하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난다.